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 또래소외 매개효과중심으로

엄주란¹, 남미예^{2*}

¹한국사회복지진흥원, ²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The Convergence effects of on Adolescent depression on Aggression by Gender Difference : Focusing on Peer Rejection

Joo-Ran Eom¹, Mi-Yea Nam^{2*}

¹Korea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²Seoul Christi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또래소외가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7차년도 자료에서 남자 청소년 869명 여자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또래소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은 우울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 청소년은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소외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매개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우울과 공격성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소외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개입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우울, 공격성, 또래소외, 성별차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effects of youth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the effects of peer alienation in the process. To that e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869 male teenagers and 800 female teenagers based on the data 7th wave of Korean Youth Panel Survey. Filly,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ject,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he first seven panels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direct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t turns out that the more depressed the young men and women are, the more aggressive they are. Second, In term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among young men, peer alienation plays a role as a medium and that it does not work in the case of female. It also demonstrated that men's peer rejection has a media-effect in both gender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recommended discriminatory intervention based on gender

Key Words : Adolescents, Depression, Aggression, Peer Rejection, Gender Difference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질병예방이나 단순한 치료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Corresponding Author : Mi-Yea Nam(nam157815@naver.com)

Received March 20,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April 11,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만족도로 변환되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중 청소년의 학업문제, 또래집단간의 소외, 부적응문제, 폭력 등과 같은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의 급속한 변화에서 청소년은 발달과 적응의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과 도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에서 독립되는 시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할 변화들을 감당해야 한다[1].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울과 공격성에서 이런 문제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어 초등학교 대상으로,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의 문제가 성별에 따라 문제해결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는 성인이 되어서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청소년의 심리적인 우울과 공격성 관계에서 또래에착을 대부분 살펴보았으며[3,4] 초등학교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또래소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동·청소년패널 초4패널 7차년도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는데 차별성이 있다. 또한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우울과 공격성 관계에서 또래소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삶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를 생각해보고 융합적 사고능력의 기반을 형성하여 문제해결에 기초자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우울과 공격성

청소년기의 발달정신 병리를 다루는 중단연구에서 공격성과 우울감과 같은 주요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관련성을 탐구하고 있다. 우울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누구

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이며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3].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서적 침체감, 초조감 등 우울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4]. 우울은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부정적으로 느끼며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5]. 우울로 인하여 생긴 부정적인 생각은 대인관계를 감소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6].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절망스럽거나 슬퍼서 일상생활을 못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3년 남자 청소년은 25.2%, 여자 청소년은 37.1%, 2014년 남자 청소년은 22.2%, 여자 청소년은 31.6%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 경험률을 보여 주고 있다[7].

또한 청소년의 우울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울감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우울감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은 연구와[8], 임상군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율 우울감이 더 높지만, 비 임상군에서는 성차의 차이효과 크기가 매우 작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9].

공격성은 타인이나 자신에게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한다. 아동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10], 일반적으로 공격성향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으며, 여자 청소년도 남자 청소년 못지않게 공격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11]. 우울감이 비행에 유발하는 요인이이라는 연구와 함께 품행장애와 우울간의 공존병리 연구가 보고되었다[12].

요즘 현대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께도 폭력을 휘두르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중학생들에게 2008년 ‘폭력에 대한 인식-폭력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에 20.8%, ‘그렇다’에 8.4%가 응답하여 30%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13]. 학교 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폭력행동과 같은 폭력적인 문제행동은 우울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비행과 우울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공격적 행동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우울감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격적인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공격성을 유지할 성향이 높으며[14], 공격적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일반적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비행 청소년이 될 성향이 높다[15]. 공격성은 타인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자극을 주는 행동양식으로 정의되며[16], 청소년은 타인의 동기와 의도를 지각할 수 있고 역할수행 능력을 얻으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17].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은 공격성, 특히 신체적 공격행동에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되는가 하면[18],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19]. 외국 사례 중 네덜란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우울감이 부모의 거부를 일으키고, 부모 거부는 청소년의 공격성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를 지지하였다[20]. 반면에 공격행동이 우울감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21].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간의 거부관계가 일관되게 보였고[22], 선행연구에서도 공격적 행동이 또래관계간의 거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좋은 관계형성은 우울감과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2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외현적 공격 성향으로 인해 또래관계 거부나 또래소호작용이 좋지 않은 경우 자신이나 미래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우울감, 불안이 더욱 취약하게 된다.

2.2 또래소외

청소년 시기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감을 자주 느끼게 된다[24]. 이러한 점에서 소외감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임은 물론, 다른 그 어떤 시기보다 청소년 시기에 꼭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소외감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소외의 개념을 바탕으로 무력감, 규범상실감, 고립감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25].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소외감을 연도별로 살펴본 연구 결과, 1990년 후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이며[26], 소외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구도 있다[27].

청소년 시기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면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우울감 및 외로움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학교생활 중단 또는 행동장애와 비 사회화된 공격적 행동 등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집단따돌림, 휴대폰 중독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2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변수와 공격성 사이에서 또래소외가 경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또래소외감이 지니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3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제시된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1: 남녀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소외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2: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소외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으로 우울감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한 자료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7차년도 자료로서 현재 고등학생에 해당된다. 모든 변수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남자 청소년 869명, 여자 청소년 800명 총 1,669명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869명(52.1%)으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72명(54.3%)으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매우 건강하다’ 354명(40.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0명

(4.6%),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3명(0.4%)이었다. 최종학력 부친은 ‘대졸 이상’이 413명(47.5%), 가장 많았으며, ‘고졸’ 348명(40.0%), ‘전문대졸’ 84명(9.7%), ‘중졸 이하’ 24명(2.8%)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모친은 ‘고졸’이 399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 310명(35.7%), ‘전문대졸’ 140명(16.1%), ‘중졸 이하’ 20명(2.3%)이었다. 가구연간 소득은 ‘3,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은 556명(64%)으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3,500만원 미만’은 155명(17.8%) ‘7,000만원 이상~10,500만원 미만’은 148명(17%), ‘10,500만원 이상’은 10명(1.2%)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800명(52.1%)으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514명(64.3%)으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매우 건강하다’ 237명(29.6%),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7명(5.9%),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명(0.2%)이었다. 최종학력은 부친은 ‘대졸 이상’이 424명(53.0%), 가장 많았으며, ‘고졸’ 273명(34.1%), ‘전문대졸’ 94명(11.8%), ‘중졸 이하’ 9명(1.1%)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모친은 ‘대졸 이상’ 338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331명(41.4%), ‘전문대졸’ 125명(15.6%), ‘중졸 이하’ 6명(0.8%)이었다. 가구연간 소득은 ‘3,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은 501명(62.6%)으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3,500만원 미만’은 150명(18.8%) ‘7,000만원 이상~10,500만원 미만’은 129명(16.1%) ‘10,500만원 이상’은 20명(2.5%)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an N=869		female N=800	
		N	%	N	%
Health status	very good	354	40.7	237	29.6
	good	472	54.3	514	64.3
	poor	40	4.6	47	5.9
	very poor	3	0.4	2	0.2
Father's final education	≤Middle school	24	2.8	9	1.1
	High school	348	40.0	273	34.1
	College	84	9.7	94	11.8
	≥University	413	47.5	424	53.0
Mother's final education	≤Middle school	20	2.3	6	0.8
	High school	399	45.9	331	41.4
	College	140	16.1	125	15.6
	≥University	310	35.7	338	42.3
Household income	< 3,500	155	17.8	150	18.8
	≥3,500 ~ < 7,000	556	64.0	501	62.6
[Unit: ten thousand]	≥7,000 ~ <10,500	148	17.0	129	16.1
	≥10,500	10	1.2	20	2.5

3.2 측정도구

1)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구성된 통제변수는 성별,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 최종학력이다. 성별은 남자를 ‘0’으로 여자를 ‘1’로 한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4점 리커트 척도로 한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 이상을 ‘4’로 한다.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로그변환 하여 사용한다.

2) 종속변수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한국어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패널 척도를 사용한다[29].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하루 종일 화를 낼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는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이며, Cronbach’a는 0.819 으로 나타났다.

3) 독립변수

우울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척도이며 총 10문항으로 한국어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패널 척도를 사용한다[30]. 문항의 내용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이다. 점수는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a는 0.891 으로 Hair et al(1998)연구에서 제시하는 신뢰도 수준 0.6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은 확보되었다.

4) 매개효과

또래소외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한국어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또래애착척도(IPPA)를 변안, 수정한 김지연(1995)[31],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수정·보완한 패널척도를 사용한다[32]. 중복된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으로 하위영역별 3문항으로 구성된 패널양식 문항(의사소통, 신뢰, 소외)중 또래소외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

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는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는 .726 으로 확인되었다.

3.3 일반특성 및 분산분석결과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결과를 Table 2와 같다.

주요변수의 남자 청소년의 우울 평균은 16.83, 여자 청소년의 우울 평균은 18.77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또래소의 평균은 5.88, 여자 청소년의 또래소의 평균은 5.66이다. 공격성은 남자 청소년의 평균은 10.67, 여자 청소년의 평균은 11.10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 등을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 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4이하로 나타나서 모든 변수에서 기준 충족함에 따라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우울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청소년의 우울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359, p<.001$). 남자 청소년의 또래소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54, p<.05$).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59, p<.01$).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and variance analysis result

Variables		N	Mn	Mean	MAX	S.D	Skewness	Kurtosis	t
Depression	man	869	16.83	10	39	5.317	0.083	0.166	$t=-7.359$ ***
	female	800	18.77	10	39	5.498	0.318	0.083	
peer Rejection	man	869	5.88	3	12	1.964	0.540	0.329	$t=2.454$ *
	female	800	5.66	3	12	1.786	0.422	0.154	
Aggression	man	869	10.67	6	23	3.169	0.302	-.0420	$t=-2.759$ **
	female	800	11.10	6	21	3.223	0.103	0.173	

* $p<.05$, ** $p<.01$, *** $p<.001$

3.4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검토하기 위

해 실시한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값은 Table 3과 같다. 우울과 또래소의($r=.318, p<.01$), 공격성($r=.56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래소의와 공격성($r=.239, p<.01$)도 정적인 상관관계로 주요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Depression	Peer Rejection	Aggression
Depression	1		
Peer Rejection	.318**	1	
Aggression	.565**	.239**	1

** $p<.01$

3.5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남자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우울이 공격성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소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분산팽창요인(VIF)은 3 미만(1.010~2.218)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0.451~0.981)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통제변수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최종 학력을 투입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우울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또래소의를 투입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Model 1을 살펴보면, 설명력은 2.2%이며, 건강상태($\beta=.115, p<.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인 우울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설명력 32.4%이고 R^2 변화량은 .302로,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우울($\beta=.572, p<.001$)할수록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은 매개변인 또래소의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설명력 33.3%이고 R^2 변화량은 .008로,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소의($\beta=.094, p<.01$)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또래소의가 심각할수록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분산팽창요인(VIF)은 3 미만(1.002~2.58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0.387~0.998)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투입단계와 남자 청소년과 동일하며, 먼저 Model 1을 살펴보면, 설명력은 3.5%이며, 건강상태($\beta = .179$ $p < .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인 우울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설명력 33.5%이고 R^2 변화량은 .300로, $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우울($\beta = .579$, $p < .001$)할수록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은 매개변인 또래소외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설명력 33.6%이고 R^2 변화량은 .000으로 나

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달리 여자 청소년은 또래소외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소외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활용하는 Hayes(2012)의 매크로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Sobel Test와 부트스트래핑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33]. 또한, Hayes(2012)의 회귀분석 검증은 간접효과(우울→또래소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Aggression(man)

N=869

	Model 1			Model 2			Model 3		
	B(SD)	β	t	B(SD)	β	t	B(SD)	β	t
constants	10.854(.627)		17.302***	6.377(.570)		11.179***	5.669(.609)		9.309***
Physical condition	.619(.185)	.115	3.349**	-.219(.160)	-.041	-1.374	-.226(.159)	-.042	-1.421
Household income	-.004(.009)	-.020	-.511	-.003(.007)	-.016	-.489	-.002(.007)	-.009	-.298
Father's finaeducation	-.013(.161)	.004	.082	-.095(.134)	-.030	-.708	-.108(.134)	-.034	-.806
Mother's finaeducation	-.276(.164)	-.085	-1.678	-.186(.140)	-.055	-1.327	-.175(.139)	-.052	-1.256
Depression				.339(.017)	.572	19.4820***	.323(.018)	.545	17.875***
Peer Rejection							.153(.048)	.094	3.199*
R^2	.022			.324			.333		
adj_ R^2	.018			.320			.328		
ΔR^2				.302			.008		
F	4.816**			80.961***			69.912**		
Dubin-watson	1.924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Aggression(female)

N=800

	Model 1			Model 2			Model 3		
	B(SD)	β	t	B(SD)	β	t	B(SD)	β	t
constants	10.056 (.674)		14.915***	5.082 (.619)		8.204***	4.957 (.644)		7.700***
Physical condition	1.036 (.204)	.179	5.086***	-.035 (.179)	-.006	-1.197	-.038 (.179)	-.007	-2.13
Household income	-.007 (.008)	-.031	-.798	.000 (.007)	.002	.067	.000 (.007)	.002	.065
Father's finaeducation	.089 (.194)	.026	.459	.091 (.161)	.026	.564	.088 (.161)	.026	.548
Mother's finaeducation	-.200 (.195)	-.058	-1.026	-.203 (.162)	-.059	-1.251	-.202 (.162)	-.058	-1.248
Depression				.340 (.018)	.579	18.764***	.335 (.019)	.571	17.219***
Peer Rejection							.041 (.057)	.023	.712
R^2	.035			.335			.336		
adj_ R^2	.030			.331			.331		
ΔR^2				.300			.000		
F	7.087***			78.640***			65.576***		
Dubin-watson	1.994								

* $p < .05$, ** $p < .01$, *** $p < .001$

외→공격성)에 대한 유의성을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순차적 매개효과의 검증은 Process Macro(Hayes, 2012)에서 model 4번으로 검증하였다[34].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95%의 신뢰수준을 설정한 후 살펴보면 간접효과는 .0160이며 신뢰구간은 하한값이 .0056 상한값 .0289로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남자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도 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 하였고, 95%의 신뢰수준에서 간접효과는 .0050이며, 신뢰구간은 하한 값이 -.0103 상한값 .0207로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은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Peer Rejection

		Indirect effect	Boot SE	LLCI (95%)	ULCI (95%)
Peer Rejection	Man	.0160	.0059	.0056	.0289
	Female	.0050	.0079	-.0103	.0207

4. 결론 및 논의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학업, 또래 친구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울과 공격성이 저 연령화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정체감과 관련하여 또래소의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 초4 패널 7차년도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자는 1,669명으로 남자 청소년 869명, 여자 청소년 800명이다.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소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2012)의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남자, 여자 청소년은 모두 우울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 청소년이 우울감이 높은 경우에 공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35-38].

둘째, 남녀 청소년의 주요변수에 대한 성별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우울감과 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8,9]와 달리,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은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39]. 또래소의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27].

현대의 청소년들은 학업에서의 또래 친구와의 경쟁, 인간관계 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며, 청소년의 우울감이 있는 경우 가족 및 학업에 대한 부적응, 성인기의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위에 있는 또래친구, 부모 및 교사들이 우울감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특별히 필요하다[37].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우울감이 심각하여 부정적 행동인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교육을 통해 넓혀 나가야 한다. 특히, 우울감이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가족 안에서 마음을 둘 곳 없는 청소년에게는 학교는 열린 자세와 더욱 유연한 태도로 학생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초기 우울감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 교육 복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적대적이고 공격적 행동은 또래관계에서 갈등 및 소외될 수 있다[40].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감이 더 높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은 차별적인 우울과 공격성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차별적인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의 향상, 문제해결 대처, 사회성 향상 및 대인관계 대처 능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예와 같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친구와 교사로부터 지지와 도움의 경험을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래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취미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41].

일상적인 생활에서 분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자 청소년만을 위한 차별적인 취미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필요하다.

셋째,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소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에서만 또래소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은 집단적 상호의존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여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또래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42]. 이런 결과

는, 여자 청소년은 대인 관계, 개별적인 관계를 남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래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42,43]. 따라서 여자 청소년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소외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 매개효과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개입전략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한다.

남자 청소년에게는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공유하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또래집단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 상담자를 통한 차별적인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래소외 문제를 해결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 청소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우울과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게임과 같은 미디어 같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하고 [44], 차별적인 집단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또래관계 갈등 및 소외를 예방하고 건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여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대인적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속성이 있어 또래소외 되는 경우 부모나 교사가 조금 더 유연한 관계의 환경 및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42].

여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공격성이 동반한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더 위험군이 될 수 있으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풀고 실패감이나 두려움을 보이지는 않는지, 소속감 등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45].

우울과 공격성에서 저 연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유아기부터 교사, 부모, 학생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사전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조직 문화가 ‘더불어 잘 지내는 정다운 학교’와 같은 캠페인 및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사, 부모,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우울과 공격성으로 또래갈등과 소외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차별적인 성별 청소년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가 매개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우

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서, 차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우울과 공격성 관계에서 또래소외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는데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시간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 둘째,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사용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인이 충분히 측정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우울과 공격성에서 또래소외 매개효과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공격성 변인에 있어서 전체, 외현, 내현 세분화 하여 추가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래소외 변인에서도 또래관계에서 직접, 간접 따돌림인지 설문지 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M. Yoon & B. Kum. (2005). Par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Ecological systematic point of view* 28, 133-164.
- [2] M. H. Jung. (2017). Effects of emotional control factors on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method.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4(6), 205-229.
- [3] M. H. Kim. (2009). *The Effect 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Temperament on Depress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 [4] S. Y Park. (2017). *The Effects of Ego-identity and Peer-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5] M. A. Lee. (2015). *The effects of Social Quality on Suicide Ideation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271-281.
DOI : 10.14400/jdc.2015.13.3.271
- [6] D. B. Kim, J. S. Min, G. & H. Jung (2012).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on Depression of Nursing Home. *Residents-Focusing on Low-incom Elderly*, 43(1), 203-227.
DOI : 10.16999/kasws.2012.43.1.203

- [7] N. C. Shim. (2000). *A Study on the Cure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Gwangju.
- [8] J. A. Kim. (2011).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Environment on Adolescent Depression*.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Chung-Ang.
- [9] J. M. Kim & J. H. Lee. (2008). The Effect of Peer Acceptance, Friendship Qu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on Adolescent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8(2), 132-140.
DOI : 10.15703/kjc.9.4.200812.1747
- [10] E. E. Maccoby & C. N. Jackli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4), 964-980.
DOI : 10.2307/1129535
- [11] R. D. Parke & R. G. Slavy.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548-641. New York: John Wiley & Sons.
- [12] J. Y. Lee & K. J. Oh. (2011). Examination of the temporal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b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497-518.
DOI : 10.15842/kjcp.2011.30.2.008
- [1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8). *The use of adolescents' media and the survey of harmful environment 'Violence perception' Violence helps to relieve stres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www.mogef.go.kr/>
- [14] R. E. Tremblay.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15] C. A. Lee (2001).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f adolescents*. Doctoral thesis. Jeonnam University, Jeonnam.
- [16] A Bandur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 [17] K. S. Choi. (2007).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Seoul: Kyomonsa.
- [18] J. Y. Kim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Maternal Behavior on Adolescent's Aggression*.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19] K. A. Kim (2008).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s fluctuation: Three years longitudinal study*. Master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20] W. W. Hale, I. VanderValk, J. Akse & W. Meeus. (2008). The Interplay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aggression and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 four-year community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28-940.
- [21] T. J. Dishion, G. R. Patterson, M. Stoolmiller & M. L. Skinner. (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peers." *DevPsychol*, 27, 172-180.
- [22] J. D. Coie & J. B. Kupersmidt.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DOI : 10.2307/1129803
- [23] G. R. Patterson & D. M. Capaldi. (1990). A mediational model for boys'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141-163.
- [24] E. S. Lee. (2002).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Doctoral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25] D. Dean. (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DOI : 10.2307/2090204
- [26] K. S. Kim. (1990).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problem behavior*.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7] S. J. Kim & Y. H. Kim. (2013).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Body Image on Violent Misbehaviors of Youths-focusing on sex, class. *Civil and humanitarian studies*, 24(0), 77-100.
- [28] E. K. Oh. (2008). *Alien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Daegu.
- [29] B. H. Cho & K. H. Lim.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DOI : 10.18253/kart.2016.16.1.01
- [30] K. I. Kim, J. H. Kim & W. H. Taek. (1984). A brief Program of Psychosocial testing. *Seoul: Central Activity Press*.
- [31] J. Y. Kim.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A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2] H. M. Kyu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A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33] S. h. Jung & D. G. Seo. (2016).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57-287.
DOI : 10.22257/kjp.2016.03.35.1.257

[34] A. F. Haye. (2012). *SPSS MEDIATE macro syntax reference*. Afhayes.
<http://www.afhayes.com/spss-sas-and-mplusmacros-and-code.html>

[35] Y. M. Hwang. (2017). Moderating effect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service satisfaction in the effect of the child's depression on the aggressiveness and ego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4(1), 51-70.

[36] T. H. Hong & S. T. Hwang (2015).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1), 545-568.
DOI : 10.25152/ser.2016.64.2.315

[37] T. S. Kim & C. Y. Kang. (2008).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Psychotherapy*, 8(1), 85-100.
DOI : 10.1037/e615462011-001

[38] J. K Lee.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Drop-out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Seoul.

[39] M. K. Cho, Kim, C. K. Kim & S. H. Song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Latent Mean Analysis of Gender among Abuse, Peer Attachment, Self-Respect, Depression and Aggres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2), 29-54.

[40] M. Y. KO. (200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physically abus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71-102.

[41] M. H. Lee & I. Y. Heo. (2016). A Qualitative Study o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With a focus on craft education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515-524.
DOI : 10.14400/jdc.2016.14.12.515

[42] H. J. Park, N. M. Hong & I. J. Chung. (2014). Mediating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Attachment in the Influence of Neglect and Abus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319-346.

[43] W. I. Gardner & S. Gabriel. (2003).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al and collective interdependence. *The*

Psychology of Gender(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44] H. S. Lee. (2015). Effect of teenager media usage control in the era of media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359-366.
DOI : 10.14400/jdc.2015.13.7.359

[45] M. S. Ha (2016). The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 Comorbidity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n Application of the Confirmatory LCA(Latent Class Analysis) using the Loglinear Parameteriz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1), 67-100.

엄 주 란(Joo-Ran Eom)

[정회원]



- 201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8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 현재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강사

▪ 관심분야 : 청소년, 빈곤, 고용, 통계

▪ E-Mail : jreom01@naver.com

남 미 예(Mi-Yea Nam)

[정회원]



- 2014년 2월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 2018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 현재 :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학과 주임교수

▪ 관심분야 : 유아, 아동, 가족, 청소년

▪ E-Mail : nam157815@naver.com